

필리핀 단기어학연수 파견자 결과보고서

1. 기본정보

이름	변수*	학번	
파견국가	필리핀	파견도시	수빅
파견대학	필리핀대학마닐라	기간	2017. 6. 17(토) ~ 7. 15(토)

2. 파견대학, 수업 및 Activity

구분	결과보고(서술형)
파견대학	<p>파견대학 위치, 규모 및 시설, 전체적인 분위기 등에 대하여 서술해주세요.</p> <p>제가 파견된 대학은 필리핀 마닐라 대학입니다. 어학원은 수빅이라는 작은 도시의 숲 속에 위치해있고 클락 공항에서 1~2시간 정도 걸립니다. 어학원 5층은 학생들의 기숙사로 사용되고 1대1 수업 교실과 그룹수업 교실이 1~5층에 있습니다. 어학원 앞에는 수영장이 있어 아무때나 놀 수 있고 식당 옆에 작은 매점이 있어 과자나 음료수 같은 것을 사먹을 수 있습니다. 숲속에 있다보니 아침이나 밤에 이상한 동물 울음소리가 들리기도 해서 말 그대로 자연 속에 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p>
수업	<p>수업내용, 수업방법, 분반여부, 강사, 과제, 수업준비 등 수업 전반에 대하여 서술해주세요.</p> <p>첫 날 레벨테스트를 보고 레벨에 따라 5명씩 그룹이 정해지고 1대1 교재가 정해집니다. 레벨테스트는 listening, 독해, 문법, 단어, writing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저는 영어를 잘 못해서 그런지 생각보다 어려운 문제가 몇몇 있었습니다.</p> <p>수업은 8시부터 5시 까지 8교시고 TOEIC SPEAKING 수업은 두 번 진행됩니다. 1대1 수업과 그룹수업이 각각 4번씩 있고 1대1 수업은 교재가 다른데 사실 수업보다 프리토킹을 하는 시간이 많았습니다. 1대1 수업은 큰 교실 안에 작은 교실이 여러개 있어 그 곳에서 선생님과 학생 둘이 수업을 하게 됩니다.</p> <p>CAN YOU BELIEVE IT 수업은 실제로 있었던 신기한 일들을 읽고 단어를 배우고 문제푸는 식으로 수업했습니다.</p> <p>4K EEW 수업은 단어를 배우고 그 단어로 문장을 만드는 수업인데 평소에 알고있던 뜻이 아닌 다른 뜻으로 배우는 단어도 있고 잘 사용하지 않는 단어도 있었습니다. 저는 레벨이 낮아서 단어도 쉬운 단어였는데 그래</p>

서 수업하긴 쉬웠지만 지루할 때도 있었습니다.

SLE 수업은 주제에 따른 단어 등을 배웠는데 사실 프리토킹을 많이 했습니다!

IMPACT ISSUES는 한 주제에 대해 의견을 주고 받는 수업입니다.

저는 1대1 수업을 대부분 2층에서 했는데 2층 교실은 다른 층보다 작고 빛도 밝지 않고 방음이 더 잘 되지 않아 수업하는데 많이 시끄러웠습니다.

그룹 수업은 TOEIC SPEAKING, MULTI MEDIA CLASS, READING FOR REAL이 있었습니다.

TOEIC SPEAKING은 말 그대로 토익 스피킹 시험에 대비하는 수업입니다. 수업 자체는 재미있었지만 짧은 시간 안에 생각해서 대답을 해야 하고 매번 테스트를 보는 부담감 때문에 저는 개인적으로 힘들었습니다. 마지막에 토익 스피킹 테스트를 보기 때문에 점수를 잘 받고 싶은 분들은 수업할 때 열심히 연습하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MULTI MEDIA CLASS는 뮤직비디오 1개와 커머셜 2개를 만드는 수업입니다. 셋째 주 때는 수업을 안하고 영상을 만들 수 있는 시간을 줍니다. 이때 저희 그룹은 거의 놀았습니다. 영상을 만들면서 그룹끼리 많이 친해질 수 있었고 추억도 많이 만들 수 있어서 제가 제일 좋아하는 시간이었습니다. 영상을 만들려면 노트북이랑 영상편집 프로그램이 필요하기 때문에 준비해서 오시는게 좋을 것 같아요. 영상 편집할 수 있는 학생이 조금 고생합니다.

READING FOR REAL은 선생님은 좋았지만 책이 재미 없었습니다. 이야기를 읽고 모르는 단어는 영어로 설명해줍니다. 그래도 이 시간에 배운 단어들이 지금도 기억에 많이 남아있습니다.

영어로 말할 수 있는 기회는 1대1수업때가 많이 하긴 하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그룹끼리 친해질 수 있었던 그룹 수업이 더 재미있었습니다.

숙제는 선생님들마다 다른데 제 선생님들은 숙제를 많이 내주지 않으셨습니다. 숙제는 수업이 끝나거나 점호 하고 10~20분이면 할 수 있는 수준입니다.

무엇보다 선생님들이 모두 정이 많으셔서 좋았습니다. 물론 저와 맞지 않은 선생님도 있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오피스에 말하면 선생님을 바꿔 주십니다. 저는 선생님을 바꾸지 않고 끝까지 수업을 했는데 조금 힘들었습니다. 선생님들께는 죄송하지만 본인과 맞지 않는 선생님이 있다면 바꾸는 것이 좋을것 같습니다.

틀린 문장을 고쳐주시는 선생님, 개인적인 얘기를 많이 하시는 선생님, 프리토킹을 좋아하시는 선생님 등 다양한 선생님들이 계신데 모두 학생들에게 잘해주시고 수업 준비도 진짜 열심히 해오신다는걸 느낍니다.

Activity	<p>수업 외에 별도로 진행된 Activity에 대해 서술해주세요.</p> <p>- Activity 종류, 내용, 준비물, 추가비용 등</p> <p>매 주 토요일 마다 단체 액티비티를 합니다.</p> <p>첫 주에는 랜덤으로 학생 5명 선생님 1분으로 조를 짜서 수빅 투어를 하게 됩니다. 여기에서 전통시장, 하버포인트, SM몰 등에 가보고 지프니와 트라이시클도 타봅니다. 하버포인트랑 SM몰은 말 그대로 큰 물입니다. 4주 동안 대부분을 여기에서 먹고 놀고 합니다. 이 날 선생님 지도로 유심칩과 데이터를 삽니다. 데이터는 1주일에 1G 쓸 수 있는 100페소 짜리로 사세요! 저희 조는 잘못사서 개인적으로 다시 샀습니다ㅠㅠ 환전도 이 날 하게 됩니다. 이 날 엄청 덥고 힘이 들어서 말을 별로 안 했는데 선생님이 신경쓰는게 보여서 죄송했습니다. 저녁엔 모든 학생들이 모여서 맛있는 밥도 먹고 기숙사로 들어갈 땐 학생들만 택시를 타고 들어갔습니다. 이 날 약 650페소 사용했습니다.</p> <p>둘째 주에는 리조트에 갔습니다. 입장하는데 문제가 있었는지 30분 정도 기다렸다가 겨우 들어갔는데 밥도 1시간이 걸린다고 해서 결국 뷔페를 먹었습니다. 라커 빌리는 것도 따로 돈을 지불해야 합니다. 액티비티는 돈이 안드는 줄 알고 있어서 이 때 약간 불만이 생기기도 했습니다. 수영장 앞에 바닷가가 있는데 바다는 깨끗하지 않아서 대부분 수영장에서 놀았습니다. 제가 물을 별로 좋아하지 않아서 신나게 놀진 않았지만 경치가 좋아서 사진찍기도 좋았습니다. 수영장에 발만 담그려고 해도 수영복이 필요하니까 수영복 꼭 챙기셔야 합니다. 이 날은 밥+라커로 700페소 약간 넘게 사용했습니다.</p> <p>셋째 주에는 고아원 봉사를 갔습니다. 이 때 300페소를 기부하게 됩니다. 저는 이 때 기억이 별로 좋지 않습니다. 고아원의 아이들에게는 좋은 시간이었을 수 있겠지만 저는 봉사가 아니라 보여주기식 사진찍으러 간 느낌이 들었습니다. 이건 지극히 개인적인 생각입니다!</p> <p>넷째 주에는 요트투어를 갔습니다. 요트투어에 가기 전에 두 시간 정도 타임즈 SLC 회장의 강연을 들었습니다. 이 때 사실 조금 힘들었습니다.. 요트투어는 요트를 타고 30분 정도 들어가서 바다 가운데서 놀게 됩니다. 저는 무서워서 물에 들어가지 않고 사진찍으면서 놀았습니다. 놀다가 중간에 치킨이랑 맥주를 먹었습니다. 이 때 먹은 치킨이 정말 맛있었습니다.! 이 날 영상도 찍어서 그룹 학생들과도 좋은 추억을 만들 수 있었습니다. 요트 안에서 샤워하기 힘들기 때문에 대부분 학생들이 옷만 간단하게 갈아입고 기숙사에 들어서 씻고 시내로 놀러 나갔습니다. 요트투어에는 금액이 따로 들지 않았습니다.</p> <p>마지막 주 화요일엔 마닐라투어를 갔습니다. 마닐라 대학교 학생과 우리 학교 학생이 1대1로 말 그대로 투어를 하는 줄 알았는데 강당에서 게임만 하고 끝나서 약간 실망했습니다. 대학교 구경도 못 하고 시내도 버스 안에서만 구경했습니다. 박물관도 갔는데 제가 박물관에 흥미가 없어서 지</p>
----------	---

루했습니다. 그래도 마닐라 대학교 학생들이 열심히 설명해줍니다. 마지막으로 아시아 물이라는 곳을 갔는데 너무 커서 많이 못 돌아다녔습니다. 새벽에 출발해서 밤에 도착했는데 버스에서 잘 수 있지만 피곤했습니다. 모든 액티비티가 끝나면 자유시간이기 때문에 돈을 챙겨야 합니다. 금요일은 점호가 12시여서 학생들끼리 회식을 하거나 그룹과 MMC 영상을 촬영했습니다. 귀국하기 전날인 금요일에는 MMC영상 콘테스트를 했습니다. 다른 그룹 영상도 보고 즐거운 시간이었습니다. 어학원에 저희 말고 다른 학교 학생들도 있었는데 MMC콘테스트가 끝나고 이 학생들과 선생님들과 저희 학교 학생들을 섞어서 체육대회를 했습니다. 이 날 일정이 타이트해서 힘들었습니다.

개인적인 활동으로는 Tree top, Zoobic Safari, 스쿠버다이빙을 했습니다. Tree top은 어학원 바로 앞에 있는 곳인데 놀이기구(?)같은걸 타는 곳입니다. 번지점프 등등 5개정도가 있는데 그 중에 3개 정도가 재미있습니다! 사실 안전장치가 불안하긴 했습니다.. 생명각서(?) 같은 것도 작성합니다. 그래도 꼭 가보세요! 번지점프는 저희가 생각하는 그런 번지점프가 아닌데 시간이 없어서 못 한게 아직까지 후회됩니다ㅠㅠ 기구는 하나당 150~300페소 정도로 저렴하고 5시까지 밖에 안해서 평일에는 못가고, 토요일에 액티비티하고 일찍 들어왔을때 아니면 일요일에 가야 합니다.

Zoobic Safari는 저희 그룹끼리 추억 쌓을 겸 영상 촬영할 겸 선생님들 추천을 받고 간 동물원입니다. 한국 동물원이랑 다르게 자연 속에 있어서 새로운 경험이었습니다. 이 날 비가 갑자기 와서 악어 밥주기는 못했지만 저렴한 가격으로 사파리까지 체험할 수 있어서 좋았습니다! 입장료는 695페소이고 음료수랑 기념품 사서 750정도 들었습니다. 사파리 갈 때는 택시타고 가는데 3~400페소정도 5명이 나눠서 냈던걸로 기억합니다.

스쿠버다이빙은 오가네라는 한인식당에서 체험할 수 있습니다. 여기도 같은 그룹 학생들도 함께 가게 되어서 영상 촬영도 하고 정말 좋았습니다. 바다 속을 볼 수 있는 시간은 짧았지만 태어나서 처음 해보는 경험이라 3000페소라는 돈이 아깝지 않을 정도로 좋았습니다. 저는 물을 무서워했지만 강사분이 저희를 끌고다니는 방식이어서 수영을 못해도 가능했습니다.

3. 생활전반

구분	결과보고(서술형)
날씨	<p>현지 기후 및 유의점</p> <p>처음 공항에서 내렸을 때 새벽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찜질방에 온 줄 알았습니다.... 한국 여름보다 약간 덥고 엄청 습합니다. 그래도 이틀이면 익숙해집니다.</p> <p>저희가 갔을 땐 우기라 비가 오다 말다 했습니다. 비가 한 번 오면 엄청 쏟아지기 때문에 수업 끝나고 시내에 나갈 때 날씨가 흐리다면 우산을 꼭 챙겨야 합니다.</p>
안전	<p>현지 안전 상황</p> <p>총기소지가 금지된 지역이라 어학원 뿐만 아니라 시내에 있는 큰 건물에는 가드가 있어 가방검사를 합니다. 물론 밤 늦게 다니면 남자들도 위험하기 때문에 구석진 곳 까지 들어가지 않는다면 안전하다고 생각합니다.</p> <p>시내에 다닐 때는 남,여학생 모두 2~3명씩 뭉쳐 다니는게 좋습니다.</p> <p>올롱가포라고 시내에서 5분이면 갈 수 있는 지역이 있는데 여기는 안쪽으로 더 들어가면 위험하기 때문에 선생님들도 잘 가지 말라고 하십니다.</p> <p>혹시라도 가게 된다면 여러명이 가고 휴대폰이나 지갑은 가방속에 넣고 잘 지니고 다니세요.</p>
숙소	<p>학교기숙사(0) 홈스테이 () 외부 숙소() 기타()</p> <p>숙소 시설, 분위기, 규칙, 유의사항 등 숙소 전반에 대한 평가</p> <p>시설이 별로 좋지 않을 것이라고 어느정도 예상하고 가서 저는 지낼만 했습니다. 하지만 평소 깔끔하거나 예민한 성격이라면 조금 불편할 수도 있어요. 방에서 과자 같은걸 먹으면 개미도 나오고 가끔 도마뱀도 들어옵니다. 처음에 도마뱀이 들어왔을 땐 가드에게 쫓아달라고 했는데 나중에 또 들어왔을 땐 그냥 지냈습니다.</p> <p>다음날 수업이 없는 날은 점호를 12시에 하고, 수업이 있는 날은 10시에 점호를 했습니다. 점호때는 학생 대표와 학생 매니저(직원)가 들어왔는데 아픈곳이 없는지, 불편한 점이 없는지 물어보고 일정을 공지해줍니다.</p> <p>월, 수, 금에 빨래를 해주시는데 날씨가 좋아서 다음날 바로 받을 수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모르겠는데 저희 방 사람들 옷은 목 부분이 많이 늘어났습니다. 참고하세요</p>

<p>식사</p>	<p>학교식당(0) 홈스테이 () 외부식당 ()기타()</p> <p>본인이 주로 이용한 식사방법 체크, 식사 전반에 대한 평가</p> <p>아침, 점심, 저녁은 식당에서 학교 급식처럼 나옵니다. 아침은 대부분 빵이나 햄, 간단한 밥과 반찬이 나옵니다. 아침을 안 먹으면 다 버린다고 해서 한국에서는 안먹었지만 여기서는 먹으려고 노력했습니다. 필리핀 쌀이라 그런지 가끔 배가 안부를 때가 있었는데 그럴땐 한인마트에서 사온 라면을 먹었습니다. 완벽하게 한국 맛이 나진 않았지만 한식 급식이 아니었다면 한 달동안 힘들었을 것 같습니다.</p> <p>저녁을 안먹고 시내로 나갈땐 점심시간에 표에 저녁을 안먹는다고 체크해야 합니다. 시내에 나가면 햄버거나 피자, 필리핀 음식들이 많기 때문에 자주 사먹었습니다. 선생님들께 음식점 추천 해달라고 하세요.</p>
<p>교통</p>	<p>통학방법, 시내교통 관련</p> <p>어학원에서 시내로 나갈 땐 대부분 FB라는 교통수단을 이용했습니다. 한 차에 16명이 타는데 에어컨이 없어서 처음엔 좀 더웠지만 나중엔 익숙해 집니다. 택시를 부를 수 있지만 콜비가 붙습니다. 10분마다 온다고 했는데 30분 이상 기다릴 때도 있고 지나가더라도 안에 사람이 많아 타지 못할 때도 있습니다. 시내에서 어학원으로 들어올 때는 거의 택시를 타는데 택시 정류장에서 5명 이하면 120페소, 이상이거나 비가 오면 150페소를 받습니다. 택시는 타기 전에 가격흥정을 하고 SLC를 아는지 꼭 물어보고 타야합니다. 택시 정류장이 어디에 있는지 수빅 투어를 할 때 선생님께 여쭙보세요.</p> <p>초반에 이사님께서 교통수단이랑 가격 설명 해주십니다.</p> <p>첫 날 조를 나눠서 선생님들과 수빅투어를 할 때 필리핀 교통수단인 트라이시클과 지프니도 타봅니다.</p>

4. 소요경비 (본인이 지출한 총 비용)

단위:원

※ 출국 전 사전 납부 금액 외에 추가로 현지에서 본인 지출내역을 써주세요.

항목	비용	비고(간략한 비용내역 등)
항공료,유학허가증(SSP), 여행자보험	726,000	출국 전 사전 납부
교통비	약 19,800	택시, FB
식사	약 198,000	
기념품	약 33,000	망고, 티셔츠 등
개인 액티비티	약 88000	
기타	나머지	유심, 데이터, 선생님 선물 등
합계	1,196,000	추가환전 20,000원

5. 출국 전 준비사항

파견 전 반드시 꼭 알아야 할 사항, 알았으면 좋았을 사항 중심으로 서술해주세요.

저는 400달러를 환전했습니다. 이것 저것 사먹고 선물 사오기에 적당한 금액이지만 개인적으로 다른 활동이나 많은 경험을 하고싶다면 450~500달러 정도 환전해오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저는 스쿠버다이빙을 해서 거금을 쓰는 바람에 마지막 주에는 돈이 부족했습니다ㅠㅠ 아니면 외국에서 사용할 수 있는 카드에 비상금을 챙겨오세요. 식당이나 마트에서 카드를 안 받는 경우도 있으니까 ATM기로 뽑아서 사용해야 합니다. 수수료가 200페소 정도 들기 때문에 비상금 적당히 챙겨오세요.

신 마트라고 한인마트가 있는데 여기에서 한국 돈을 페소로 바꿔주십니다. 한국 돈 2~3만원 정도 챙기셔도 비상금으로 쓰기 좋아요.

화장품이나 샤워용품 같은건 가서 버리고 올 생각 하고 챙겨가세요.

생각보다 모기에 많이 물리는데 모기퇴치제는 필리핀에서 오프로션을 사면 되니까 한국에서 사가지 마시고 버무리 꼭 챙겨가세요.

옷은 많이 챙겨가지 않으셔도 됩니다. 대부분 시간을 어학원에서 보내기 때문에 편한 옷 3~4벌은 꼭 챙기세요! 빨래도 잘해주셔서 옷이 부족할 일은 없었습니다. 교실이나 시내 건물 안은 에어컨을 많이 틀어서 감기에 걸리는 학생도 있었습니다. 저지나 남방 같이 걸칠 옷 꼭 챙기세요.

저희 때는 물갈이 때문에 저 뿐만 아니라 10명 넘는 학생이 몇 일을 수업도 못가고 고생했습니다. 식당가서 음료수를 시키면 얼음컵을 주는데 얼음 절대 드시지 마시고 식당에서 주는 물도 드시지 마세요! 복도에 정수기가 있긴 한데 물갈이 하고 나니까 무서워서 물을 잘 못먹겠더라고요ㅠㅠ물은 저렴하니까 마트에서 사서 드시는 것도 좋습니다.

약은 오피스에도 있지만 개인적으로 설사약, 감기약, 두통약 등 꼭 챙겨가세요.

전자사전이 필요하다고 해서 가져갔는데 정작 수업시간에 쓸 수 없었습니다ㅠㅠ 다음엔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이사님께 여쭙보고 챙기세요.

처음에 노트북이 필요 없다고 하셨는데 가져가는게 좋을 것 같아요. 혹시 가져간다면 영상편집 프로그램 받아오시고, 영화 몇 편 받아오세요. 시내에 안 나가는 날에는 심심합니다.

썬크림 안 바르면 큰일나니까 두 통 정도 챙겨가세요.

리조트 갈 때 수영복이 꼭 필요하니까 수영복도 챙기세요.

기숙사 방에 들어갈 때 슬리퍼 하나 챙기셔서 그거 신으시거나 신발 신고 들어가야 합니다. 그리고 화장실 슬리퍼가 없어요!

옷걸이는 많으니까 안 챙기셔도 되고 휴지는 가서 사야합니다.

저희 방에는 콘센트가 세 개 밖에 없었는데 하나가 고장나서 두 개로 세 명이 사용했습니다ㅠㅠ 끝까지 안 고쳐주시더라구요.. 전압 변환하는건 필요 없고 멀티탭 2~3개 짜리 챙기면 좋을 것 같아요.

선생님들과 생각보다 정이 많이 듭니다. 한국에서 샤프나 볼펜같은 거라도 선물로 사주세요.

6. 본인 소감 및 평가

본인의 경험담, 느낀점, 향후 계획 등을 솔직하고 자유롭게 작성해 주세요.

저는 사실 공부보단 새로운 경험을 하고싶어서 갔습니다. 한 달이라는 시간이 영어가 늘 정도의 시간은 확실히 아닙니다. 가서 따로 공부를 하지 않는 이상 한국에서 가지고 있던 지식만 가지고 말을 해야합니다. 첫 날에는 영어로 외국인과 길게 이야기 하는게 처음이었고 영어도 잘 못했기 때문에 많이 떨렸습니다. 그렇지만 수업을 하면서 제가 문법에 맞지 않게 이야기를 해도 선생님들이 잘 알아들어주시고 많이 배려해주셔서 좋았습니다. 마지막 날에는 1대1 담당 선생님들이 첫 날보다 영어로 말하는데 있어서 자신감이 향상되었다는 말을 공통적으로 해주셨습니다.

저는 레벨 테스트와 마지막 테스트 모두 낮은 등수였는데 그래도 외국인과 영어로 대화가 통한다는 것 자체에 의미부여를 했습니다. 한국에 와서도 몇몇 선생님들과 연락하면서 문법이랑 단어도 찾아보면서 자연스럽게 공부를 하게 됩니다.

필리핀에서 솔직히 힘든 일도 있었습니다. 이해가 가지 않는 상황도 가끔 있었고 타이트하고 계속 바뀌는 일정 때문에 불만도 있었습니다. 물같이 때문에 밥도 잘 못먹고 수업도 못 가고 방에만 있을 땐 한국에 정말 가고싶었습니다. 이럴 때 같이 얘기할 수 있는 친구들과 선생님들이 없었다면 정말 힘들었을 것입니다.

이 기회를 통해 같이 갔던 좋은 사람들과 좋은 추억을 만들 수 있어서 좋았습니다.

살면서 이 사람들과 이런 경험을 언제 또 해볼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을 매일 했을 정도로 정말 꿈 같은 한 달이었습니다. 사실 어학원에서 짜여진 일정을 할 때보다 그냥 학생들끼리 따로 놀 때가 좋았습니다. 많이 놀다오세요!

저희가 출발할 시기에 필리핀에 안 좋은 소식이 있어서 많이 고민했는데 가지 않았다면 후회했을 것 같습니다.

7. 사진보고서(6장 이상)

	
<p>어학원 수영장</p>	<p>수빅투어 때</p>
	
<p>그룹수업 선생님이랑</p>	<p>유명한 음식점 코코라임</p>
	
<p>2층 1대1 교실</p>	<p>마닐라투어 갔을 때 룸메들이랑</p>